

논단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제59호

(2026/여름)

제1저자. kimjjaek@gmail.com

마사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을 통한 지학순 주교의 정의 실천 재해석

생명 정의와 지구적 정의를 중심으로

김재익(서강대학교 · 철학과 · 박사수료)

<https://doi.org/10.21738/JHS.2026.8.59.519>

I. 서론

■ 오늘날 정의의 문제는 더 이상 정치적 자유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기후위기, 재난, 빈곤, 지역 공동체의 붕괴, 돌봄의 위기는 정의를 인간의 생존 조건 전체의 문제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의란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이 실제로 먹고, 살고, 배우고, 관계 맺고, 공동체 속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 현대사에서 지학순 주교(池學淳, 1921~1993)는 주로 유신체제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기억되어 왔다.¹ 그의 양심선언, 투옥, 법정 진술, 인권 옹호 활동은 한국 천주교회의 사회참여와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² 그러나 지학순 주교의 실천을 민주화 운동의 정치사적 의미에만 한정할 경우, 그의 사목이 지닌 더 넓은 정의의 지평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의 실천에서는 국가폭력에 맞선 저항과 재난·빈곤에 대한 사목적 응답이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4S1A5B5A17034852).

1 지학순 주교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6월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받았다. 박민규, 〈민주주의 위해 헌신한 종교인들, 훈포장 받다〉, 《가톨릭신문》, 발행일 2020년 6월 21일.

2 우재철, 〈고 지학순 주교, 사랑과 정의의 삶〉, 《가톨릭신문》, 발행일 1993년 3월 21일.

시기적으로 교차하며 중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그의 활동은 정치적 민주화의 요구가 생존과 생계, 교육 및 협동, 공동체 회복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 지점에서 마사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 1947~)의 역량 접근법(capabilities approach)은 지학순 주교의 실천을 새롭게 해석할 철학적 틀을 제공한다. 누스바움은 정의와 발전의 기준을 국민소득이나 자원 배분의 총량이 아니라, 각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라는 역량(capability)의 관점에서 파악한다.³ 그녀에게 정의로운 사회란 인간 존엄(human dignity)에 부합하는 삶을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central capabilities)을 일정한 최소 문턱 수준(threshold level) 이상 보장하는 사회이다. 이 관점은 지학순 주교의 민주화·사회개발 실천을 단순한 정치적 저항이나 자선 활동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회복시키는 역량 보장의 실천으로 재해석하게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지학순 주교의 정의 실천을 ‘민주화 정의-생명 정의-지구적 정의’의 세 층위로 나누어 분석한다. 여기서 세 층위는 그의 실천이 시간적으로 거쳐 간 발전 단계를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사목적 실천이 어떤 박탈에 응답하고 있는가에 따라 구분되는 분석적 차원이며, 동일한 실천 안에서 중첩적으로 작동한다. 민주화 정의란 국가폭력, 정치적 억압, 양심의 침해에 맞서 인간의 자유와 참여, 인권과 존엄을 회복하려는 정의를 뜻한다. 생명 정의란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넘어, 인간이 먹고, 살고, 일하고, 배우고, 관계 맺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인간다

3 Martha C. Nussbaum, *Creating Capabilities: The Human Development Approach*,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pp.17~20 참조. (마사 누스바움, 『역량의 창조』, 한상연 옮김, 돌베개, 2023[2015], 32~35쪽)

은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정의를 뜻한다. 그리고 지구적 정의란 이러한 생명 조건의 보장이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모든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한 보편적 요청으로 확장되는 해석적 지평을 의미한다.

이 구분이 발전 단계가 아니라는 점은 사료 자체가 보여준다. 남한강 유역 대홍수와 그에 뒤이은 재난 복구는 1972년의 일이고, 양심선언과 투옥은 1974년의 일이다. 곧 생명 정의의 층위에 해당하는 실천이 민주화 정의의 층위에 해당하는 실천보다 2년 앞선다. 그의 정의 실천을 민주화에서 생명으로 이행하는 선형적 과정으로 서술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의 사목에서 정치적 억압에 대한 응답과 생존·생계·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응답은 시기적으로 교차하며 함께 나타났으며, 세 층위는 각각의 실천이 어느 박탈에 응답하고 있는지를 식별하기 위한 분석 범주이다.

다만 본 논문에서 말하는 ‘생명 정의’는 지학순 주교가 직접 사용한 고유 개념은 아니다. 그것은 그의 민주화·사회개발·생명평화 실천에 내재한 정의의 논리를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의 언어로 재구성한 분석적 개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학순 주교에게 이미 체계화된 생명 정의론이 존재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사목과 사회개발 실천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생명(life), 건강(bodily health), 유대(affiliation), 실천이성(practical reason), 자기 환경에 대한 통제(control over one's environment)의 회복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민주화 정의와 생명 정의가 중첩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개념적으로 정식화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는 두 방향에서 검토될 수 있다. 첫째는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에 관한 연구로, 역량과 기능, 인간 존엄, 핵심 역량, 결합 역량, 지구적 정의를 중심으로 그 정치철학적 의의를 분석해 왔다. 국내 연구들은 역량 접근법이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의 문제의식에

서 출발하여 누스바움에 의해 규범적 정의론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검토하였고,⁴ 인권론과 정의론, 법철학, 교육철학의 영역에서 이를 수용하여 권리와 자유를 실제로 행사 가능한 삶의 조건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⁵ 둘째는 지학순 주교에 관한 연구로, 한국 천주교회의 사회참여와 민주화 운동,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사목 방향, 원주교구의 사회개발 실천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⁶

그러나 두 흐름은 아직 충분히 접속되지 못했다. 특히 지학순 주교의 생명평화운동을 다룬 최근 연구가⁷ 공의회 수용의 맥락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그의 실천 전반을 역량 접근법이라는 규범적 척도로 분석하고 민주화 정의와 지구적 정의를 매개하는 개념 구조를 정식화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첫째, 지학순 주교를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로만 다루지 않고, 그의 실천을 생존·생계·교육·협동·공동체 회복의 차원에서 재해석한다. 둘째,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을 이론 소개에 그치지 않고 지학순 주교의 구체적 사목 실천을 분석하는 규범적 척도로 사용한

4 역량 접근법의 핵심 개념과 윤리적·규범적 함의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목광수, 「역량 중심 접근법의 윤리적 함의: 아마티아 센의 논의를 중심으로」, 『윤리학』 제1권 제1호, 한국윤리학회, 2012; 송윤진, 「인권의 철학적 기초: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에서 인간존엄」, 『법철학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법철학회, 2019; 강경희, 「마사 누스바움 잠재역량 접근법의 윤리적 함의」, 『철학연구』 제67집,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23 등 참조. 보편윤리와 지구적 정의의 차원에서 역량 접근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연구로는 강준호, 「보편윤리에 대한 보편주의적 접근방식의 비판적 고찰」, 『인문학연구』 제29호,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참조.

5 역량 접근법을 인권론·법철학·정의론·교육철학 등의 영역에 적용한 연구로는 김연미, 「누스바움의 역량접근과 정의」, 『법학연구』 통권 제61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등 참조.

6 지학순 주교의 사목과 사회참여를 다룬 연구로는 신정훈,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한 사목 방향과 지학순 주교의 사목: 사목 한정을 중심으로」, 『신학전망』 제204호,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19; 이동화, 「지학순 주교의 '통합적 인간 발전'의 실천」, 『신학전망』 제204호,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19; 장동훈, 「지학순의 공의회, '지학순'이라는 공의회」, 『신학전망』 제206호,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19; 장영민, 「한·미 외교문서로 본 지학순 주교의 민주화운동」, 『기억과 전망』 통권 제31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4; 김재익, 「지학순 주교의 생명평화운동과 가톨릭의 사회참여」, 『한국그리스도사상』 제32집,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2025 등 참조.

7 김재익, 「지학순 주교의 생명평화운동과 가톨릭의 사회참여」, 『한국그리스도사상』 제32집,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2025.

다. 셋째, 이 분석을 통해 민주화 정의와 지구적 정의를 매개하는 생명 정의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이 점에서 본 논문은 지학순 주교 연구와 누스바움 역량 접근법 연구를 연결하는 비교철학적·종교학적 시도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비교철학적 해석 방법을 사용한다. 주지하듯 누스바움은 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과 인간발전론의 맥락에서 역량 접근법을 정식화하였고, 지학순 주교는 한국 가톨릭교회의 사목 현장, 유신체제의 정치적 억압, 가톨릭 원주교구 지역의 재난과 빈곤, 농민·노동자·어민의 삶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직접적 영향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유는 인간 존엄, 취약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 자유와 참여, 공동체 회복, 보편적 책임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비교 가능한 접점을 형성한다. 본 논문은 ‘박탈 구조-사목적 응답-역량 회복’이라는 틀을 통해 지학순 주교의 실천과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이 만나는 지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박탈 구조는 인간다운 삶의 핵심 역량이 훼손되는 상황을 뜻한다. 유신체제의 국가폭력은 실천이성과 정치적 환경 통제 역량을 박탈하였고, 남한강 대홍수 재난은 생명과 건강, 생계 기반을 훼손하였으며,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농촌 빈곤과 금융 배제는 주민들의 물질적 환경 통제와 유대의 역량을 약화시켰다. 둘째, 사목적 응답은 지학순 주교가 이러한 박탈 구조에 대응한 구체적 실천이다. 셋째, 역량 회복은 이러한 응답이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 분석틀은 그의 활동을 연대기적 사건의 나열로 보지 않게 하며, 각각의 실천을 특정한 박탈 상황에 대한 응답으로 읽게 한다. 이 세 항목은 IV장 1절의 <표 1>에서 각각 하나의 열로 대응하며, 표의 열 명칭은 이 분석틀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직접적 영향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비교를 무효화하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비교의 의의를 드러내는 조건이다. 본 논문은 두 사유의 상응을 임의적 유비가 아니라 ‘박탈-응답-회복’이라는 공통의 분석 구조를 통해 논증함으로써, 세속 정치철학과 가톨릭 사회사상을 가로지르는 학제적 대화의 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마사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과 지구적 정의

1. 기능과 역량 그리고 역량의 세 차원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한 사회의 정의와 발전을 평가할 때, 국민소득이나 자원 배분의 총량보다 각 개인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⁸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능(functioning)과 역량(capability)의 구분이다. 기능은 사람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성취한 상태로, 먹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교육받는 것, 정치적으로 발언하는 것, 타인과 관계 맺는 것 등을 가리킨다. 반면 역량은 그러한 기능을 실제로 선택하고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 또는 자유를 뜻한다.⁹ 이 구분은 누스바움 이론의 자유주의적 성격을 보여준다. 정의의 목표는 특정한 삶의 양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실제 조건을 보장하는 데 있다.

누스바움은 역량을 다시 기본 역량(basic capabilities), 내적 역량

8 마사 누스바움, 『역량의 창조』, 한상연 옮김, 돌베개, 2023[2015], 33쪽.

9 Martha C. Nussbaum, *Creating Capabilities: The Human Development Approach*,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p.25.

(internal capabilities), 결합 역량(combined capabilities)으로 구분한다.¹⁰ 기본 역량은 인간에게 잠재적으로 주어진 기초적 가능성이고, 내적 역량은 교육·훈련·성장을 통해 개인 안에서 발달한 능력이다. 그러나 내적 역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말할 능력이 있어도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어 있다면 발언할 수 없고, 일할 능력이 있어도 노동시장과 금융제도가 배제적이라면 경제적 자립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치와 정의의 핵심 목표는 개인 내부의 능력이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조건과 결합되어 실제로 행사될 수 있는 상태, 곧 결합 역량의 보장이다.¹¹

이 개념은 본 논문의 핵심 분석 장치이다. 지학순 주교의 실천이 왜 시혜적 구호가 아니라 역량 보장의 실천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내적 역량과 결합 역량의 구분을 척도로 삼아 IV장에서 분석한다.

2. 핵심 역량과 최소 문턱 수준, 인간 존엄·권리의 실질화

누스바움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핵심 역량(central capabilities)의 목록을 제시한다.¹² 본 논문이 특히 주목하는 역량은 다섯 가지이다. 첫째 생명(life), 둘째 건강(bodily health), 셋째 실천이성

10 누스바움, 위의 책, 33~44쪽.

11 누스바움은 결합 역량을 내적 능력과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조건의 결합으로 규정하며, 이를 문턱 수준·실질적 자유·평등한 존중과 연결한다. Martha C. Nussbaum, *Creating Capabilities: The Human Development Approach*,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p.22. (누스바움, 위의 책, 37쪽에 해당)

12 누스바움의 핵심 역량 목록은 생명(life), 신체 건강(bodily health), 신체적 온전성(bodily integrity), 감각·상상·사고(senses, imagination, and thought), 감정(emotions), 실천이성(practical reason), 유대감(affiliation), 다른 종(other species), 놀이(play), 자기 환경에 대한 통제(control over one's environment)로 구성된다. Martha C. Nussbaum, *Creating Capabilities*, pp.33~34; 마사 C. 누스바움, 위의 책, 48~50쪽 참조. 한글 번역본에서는 affiliation을 '관계'로 번역하고 있으나, 본고는 해당 개념이 타인과의 사회적 소속, 상호 인정, 비차별의 조건을 포괄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유대감' 또는 '맥'에 따라 '유대'로 옮긴다.

(practical reason), 넷째 유대(affiliation), 다섯째 자기 환경에 대한 통제(control over one's environment)이다. 누스바움은 이 가운데 실천이성과 유대(감)을 다른 모든 역량에 스며들어 그것들을 인간적인 것으로 조직하는 '구성적' 역량으로 본다.¹³

누스바움은 이러한 핵심 역량이 일정한 최소한의 문턱 수준 이상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턱 수준(threshold)이란 인간 존엄에 부합하는 삶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최소 기준으로, 최대 행복이나 평균 복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도 인간다운 삶의 최소 조건(문턱 수준) 아래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규범을 제시한다.¹⁴ 따라서 역량 접근법은 빈곤층, 여성, 장애인, 아동, 노인, 재난 피해자, 정치적 억압을 받는 사람들의 삶을 중심에 놓는다. 최소 문턱 수준 개념은 지학순 주교의 재난 대응을 '더 나은 삶을 위한 개선'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최소 조건의 회복'으로 식별하는 척도가 된다(IV장 참조).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인간 존엄(human dignity)을 중심으로 두면서 권리 담론과 연결되되, 권리가 법에 적혀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¹⁵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도 국가폭력과 가난, 사회적 배제가 존재하면 그 자유는 행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권리의 실질화' 관점은 지학순 주교의 실천을 권리의 선언이 아니라 권리의 역량화로 읽는 IV장 분석의 전제가 된다.

3. 사회계약론 비판과 지구적 정의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기존 사회계약론에 대한 비판을 통

13 Nussbaum, *Creating Capabilities*, pp.39~40; 누스바움, 위의 책, 55쪽.

14 누스바움, 위의 책, 57~60쪽.

15 누스바움, 위의 책, 48쪽.

해 지구적 정의(global justice)의 문제로 나아간다.¹⁶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당사자들을 전제하는 사회계약론은 장애인, 타국의 시민, 비인간 동물을 정의의 주변부로 밀어낼 위험이 있으며, 국민국가 내부의 시민을 중심으로 정의를 논의할 경우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빈곤과 재난의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

누스바움은 정의의 기준을 상호 이익이나 계약의 합리성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존엄한 삶을 위해 보장받아야 할 핵심 역량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이때 정의는 국가 내부의 제도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인간다운 삶의 최소 조건이 국경을 넘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면, 지구적 차원에서도 역량 보장의 책임이 제기된다.¹⁷ 그러므로 지구적 정의는 단순히 국가들 사이의 원조나 부의 재분배 문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국적이나 출생지와 무관하게 최소한의 핵심 역량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윤리적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책임의 문제이다.

지학순 주교가 누스바움과 같은 방식으로 지구적 정의론을 체계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신체제의 인권 억압을 국제사회와 교회에 호소하고, 남한강 재난 복구에서 외국 교회·단체의 지원을 연계하였으며, 인성회¹⁸와 국제 가톨릭 네트워크를 통해 가난과 재난에 응답한 일은 지역의 문제가 국제적 연대의 회로와 접속한 지점이였다. 본 논문에서 지구적 정의란 그가 정식화한 이론이 아니라, 그의 국제적 연대 실천을 역량 접근법으로 읽을 때 열리는 해석적 지평이

16 Martha C. Nussbaum, *Frontiers of Justice: Disability, Nationality, Species Membership*,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pp.9~22 참조.

17 Nussbaum, *Frontiers of Justice*, pp.273~281, pp.306~311.

18 인성회(仁成會)는 1975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설립한 전국 차원의 사회복지·사회개발 기구로, 오늘날 한국 카리타스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지학순 주교는 설립 과정에서 통합안 성안을 위임받았고 정식 발족 후 초대 총재 주교로 선임되었다. 「인성회」, 『가톨릭대사전』; 《가톨릭신문》, 2007년 2월 25일; 1986년 12월 14일 참조.

다. 이 지평에서 그의 실천은 누스바움의 문제의식과 부분적으로 공명한다.

여기서 누스바움의 지구적 정의론이 갖는 한 가지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녀는 지구적 정의를 부유한 국가가 가난한 국가에 베푸는 시혜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핵심 역량의 최소 문턱 수준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정의의 요청으로 재정의한다.¹⁹ 이 재정의는 원조를 도덕적 선택의 영역에서 정의의 의무로 옮겨 놓는다. 지학순 주교의 사회사목 역시 가난한 이들에 대한 구호를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교회와 사회가 마땅히 저야 할 책임으로 실천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의식과 상응한다.²⁰ 곧 두 사유는 ‘도울 수 있으면 돕는다’는 시혜의 논리를 넘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한다’는 정의의 논리로 나아간다.

Ⅲ. 지학순 주교의 민주화 정의와 생명 실천

■ 지학순 주교의 사목과 사회참여는 한국 천주교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사건으로 기억되어 왔다.²¹ 그러나 그의 실천을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 양심선언, 투옥, 정의구현사제단의 형성이라는 정치사적 맥락에만 한정하면, 그가 지향한 정의의 폭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본 장은 지학순 주교의 전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서술하기보다, 다

19 Nussbaum, *Frontiers of Justice*, pp.249~250, 315~324. 누스바움은 빈곤국 시민의 문제가 “지구적 정의의 체계 전체의 설계 안에서 처음부터” 다루어져야 하며 사후적 시혜의 문제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논증하고(pp.249~250), 이를 모든 인간에게 핵심 역량의 합당한 문턱 수준(reasonable threshold level)을 보장할 지구적 책임의 원칙들로 구체화한다(pp.315~324, 문턱 수준은 p.315).

20 천주교 원주교구 30년사 편찬위원회, 『원주교구 30년사』, 천주교 원주교구, 1996; <이전 자립방안 모색해야>, 《가톨릭신문》, 1973년 9월 2일 참조.

21 지학순, 『정이가 강물처럼: 지학순 주교 강론집』, 형성사, 1983 참조.

음 장에서 수행할 역량 접근법에 따른 개념적 분석을 위해 필요한 핵심 사료와 사례를 선별하고, 그의 실천 안에 중첩되어 나타나는 정의의 여러 차원을 검토한다.

1. 민주화 정의: 양심, 자유, 참여의 역량

지학순 주교의 민주화 정의는 유신체제 아래에서 국가폭력과 정치적 억압에 맞서 인간의 양심과 자유를 공적으로 선언한 데서 출발한다. 1974년의 양심선언은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교회가 인간 존엄과 정의의 문제에 침묵할 수 없다는 사목적 판단의 표현이었다.²² 그는 정치적 억압을 인간의 양심과 존엄을 훼손하는 문제로 보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신앙과 사목의 책임으로 받아들였다.

유신체제 아래에서 시민들은 자유롭게 판단하고 발언할 수 있는 조건 자체를 박탈당했으며, 양심선언은 바로 이 박탈 상황에 대한 공적 응답이었다. 지학순 주교의 옥중서한과 항소심 최후진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옥중서한은 한국의 인권 억압 현실을 교회와 국제사회 앞에 드러내었고,²³ 항소심 최후진술은 종교적 양심과 사회정의의 실천이 분리될 수 없음을 밝혔다.²⁴ 이는 민주화 정의가 국내 정치질서의 문제를 넘어 인간 존엄에 관한 보편적 문제로 제기

22 「양심선언」(1974. 7. 23) 참조. 지학순 주교의 양심선언과 군법회의 출두 거부에 대해서는 <비상군법회의 제3심판부, 지학순 주교에 징역 15년 선고>, 《가톨릭신문》, 1974년 8월 18일; <지 주교, '조국과 교회 위해 몸 바칠 각오'>, 《가톨릭신문》, 1974년 10월 13일 참조.

23 「옥중서한」(교황 바오로 6세께 보낸 서한, 1974. 9. 11) 및 「옥중 메시지」는 명동성당 기도회에서 사제단에 의해 낭독되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1974. 9. 23 결성되어 9. 28 명동성당에서 제1차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24 항소심 최후진술(1974. 10. 7)에서 지학순 주교는 종교의 자유가 사회정의를 발언하고 실천할 자유를 포함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지 주교, '조국과 교회 위해 몸 바칠 각오'>, 《가톨릭신문》, 1974년 10월 13일.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정의 실천은 이 층위로 환원되지 않는다. 민주화 정의가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문제 삼았다면, 그의 사회개발 실천은 그 자유가 실제 삶의 조건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를 묻는다.²⁵

2. 남한강 재난 복구와 생명 조건의 회복

지학순 주교의 생명 실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건은 남한강 유역 대홍수와 그 이후의 재난 복구이다. 남한강 재난은 단순한 자연 재해가 아니라, 이미 취약한 농촌과 지역 공동체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고 주민들의 주거, 식량, 건강, 생계 수단을 동시에 위협한 사건이었다.²⁶ 사목 기록에 따르면, 남한강 유역 대홍수 이후 원주교구는 수재민 지원 사업을 전개하였고, 이후 재해대책 집행위원회를 출범시켜 수해복구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농민·노동자·어민의 교육과 협동사업이 전개되었다.²⁷ 이는 재난 대응이 일회적 자선이나 물자 배분에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재난 복구는 곧 교육, 협동, 자립, 공동체 조직화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피해 주민은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워가는 주체로 자리매김하였다.

농민에게 한우를 분양하는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 사업은 피해 농민에게 물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생계 기반

25 지학순 주교의 정의 이해는 강본집 『정의가 강물처럼』(형성사, 1983)에 집약되어 있다.

26 1972년 8월 남한강 유역 집중호우와 그에 따른 원주교구의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설립 10주 맞은 원주 '사회개발위원회'>, 《가톨릭신문》, 1983년 3월 27일 참조. 이 기사는 원주교구 사회개발위원회의 활동이 1972년 남한강 유역 집중 폭우 피해 복구 사업을 계기로 전개되었고, 처음에는 재해대책위원회로 시작되었다고 보도한다.

27 1973. 1. 29 재해대책 집행위원회가 출범하여 남한강 유역 수해복구사업을 지원하였고, 이를 계기로 농민·노동자·어민의 교육과 협동사업이 전개되었다. 1973년 재해대책 집행위원회와 수해복구 이후의 사회개발사업 전개에 대해서는 <설립 10주 맞은 원주 '사회개발위원회'>, 《가톨릭신문》, 1983년 3월 27일 참조.

을 회복할 수 있는 생산 수단을 마련해 준 실천이었다. 한우사업은 소를 마을에 지원한 뒤 이후 태어난 송아지를 회수하여 다른 마을에 다시 분양하는 순환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전한다.²⁸ 운영 방식의 세부는 구술에 근거하므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이 사업이 일회적 물자 배분이 아니라 마을 사이를 순환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점은 당대 보도에서도 확인된다. 이 점에서 한우 분양은 재난 대응이 농민의 자립과 협동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수해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재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아동의 먹을거리에 대한 응답이었다.²⁹

이러한 사례는 지학순 주교의 정의 이해가 민주화 이후의 삶의 조건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인간이 자유롭게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살아 있어야 하고, 먹을 수 있어야 하며, 병들지 않을 조건과 생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남한강 재난 복구는 지학순 주교의 정의 실천이 정치적 자유의 회복을 넘어 생존 조건의 회복으로 구체화되는 장면이다.

주목할 점은 재난 대응이 처음부터 제도화의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이다. 사목 기록에 따르면 일회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재해 대책 집행위원회라는 상설 기구가 마련되었고, 이 기구를 통해 수해 복구가 교육·협동사업으로 연결되었다.³⁰ 이는 박탈에 대한 응답이 개인의 선의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되었음을 뜻한다.

28 최규창 구술, 『평신도와 소통하는 주교님』, (사)강원시민사회연구원, 『2014 지학순주교와 민주화운동 그리고 원주 1(구술자료집)』, 2014, 128쪽; 〈지역사회에 그리스도를 심는다: 72년 수해복구사업서 출발, 농·어·광산촌 지역개발 주력〉, 《가톨릭신문》, 1983년 3월 27일, 7면.

29 〈지학순 주교, 수해아동에 급식비 지원〉, 《가톨릭신문》, 1973년 8월 19일, 3면.

30 김소남, 「1970년대 원주지역 재해대책사업위원회의 광산지역 장기구호사업과 신용협동조합운동」, 『한국 민족운동사연구』 제71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2 참조.

3. 협동조합과 사회개발: 공동체적 역량의 제도화

원주교구를 중심으로 전개된 신용협동조합 운동, 농민·노동자·어민 교육, 협동사업, 사회개발위원회 활동은 지학순 주교의 생명 정의가 제도적·공동체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바꿔 말하면, 이러한 활동들은 재난 복구나 가난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돕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 삶의 조건을 이해하고 조직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 가운데 신용협동조합 운동은 특히 중요하다. 신협은 금융제도가 아니라, 빈곤층과 지역 주민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출자하고 운영하며 상호부조의 방식으로 경제적 삶을 재구성하는 공동체적 장치였다.³¹ 농민·노동자·어민 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둘러싼 구조를 이해하고 무엇이 부당한지 판단하며 공동의 대응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사회개발위원회 활동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³² 그것은 경제개발이나 생활개선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존 기반을 회복하고 공동체적 관계망을 재구성하며 주민 스스로 삶의 조건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 사목적 실천이었다. 따라서 그의 사회개발은 국가 주도의 성장주의적 개발과 구별되며, 인간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의 회복을 목표로 삼는 개발이었다. 무점포소비자협동조합과 원주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례는 생산과 소비, 농민과 도시 소비자,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31 원주 지역 신협의 제도화에 관해서는 원주신협 20년사 편찬위원회, 『원주신협 20년사』, 원주신용협동조합, 1993; 신협중앙회, 『한국신협운동 50년사』, 신협중앙회, 2011; 방성한·이승일, 「1960-70년대 원주 지역의 신협운동: 진광 협동교육연구소와 진광신협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제65집, 호남사학회, 2017, 29~63쪽 참조.

32 〈설립 10주 맞은 원주 '사회개발위원회'〉, 《가톨릭신문》, 1983년 3월 27일.

새롭게 조직하려는 시도로서³³, 밥상과 생활세계 전체를 정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실천이었다. 이 점에서 그의 사회개발은 가난한 이들을 구호하는 수준을 넘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형식을 창출하려는 시도였다.

이상에서 검토한 사료는 지학순 주교의 각 실천이 어떤 박탈 구조에 응답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이 응답들이 인간다운 삶의 어떤 역량을 회복시켰으며, 그것이 어떻게 생명 정의라는 개념으로 정식화될 수 있는지는 다음 장에서 역량 접근법의 개념 틀로 분석한다.

IV. 역량 접근법을 통한 지학순 주교 실천의 재해석과 생명 정의

1. 사목·사회개발 실천에 나타난 핵심 역량

아래 표는 지학순 주교의 주요 실천을 ‘사목적 응답-박탈 구조-회복된 핵심 역량-생명 정의와의 관련성’의 순서로 정리한 것이다. 그 목적은 지학순 주교의 주요 실천이 어떤 박탈에 응답하여 어떤 역량을 회복시키는지를 드러냄으로써 논리적 비약 없이 생명 정의의 구조를 보이는 데 있다.

33 <원주, 무점포 소비조합 발족>, 《가톨릭신문》, 1985년 7월 7일, 7면; <원주교구 무점포 소비자협동조합, 사무실 개설>, 《가톨릭신문》, 1986년 3월 16일, 6면 참조; 김소남, 「1960~1980년대 원주지역의 협동조합운동과 생명운동」, 『신협연구』 제75호, 2020, 97~144쪽; 염찬희, 「생명운동의 또 하나의 씨앗: 천주교 원주교구와 강원도 생명운동」,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푸른나무, 2012 참조.

〈표 1〉 ‘박탈 구조 - 사목적 응답 - 역량 회복’의 틀로 본 지학순 주교의 실천과 생명 정의

구분	사목적 응답 (주요 실천 사례)	박탈 구조	회복된 핵심 역량 (누스바움)	생명 정의와의 관련성
1	1974년 양심선언, 유신체제 비판, 투옥과 법정 진술 ³⁴	국가폭력, 양심의 억압, 정치적 발언권의 박탈	실천이성, 신체적 온전성, 자기 환경에 대한 통제(정치적)	민주화 정의의 출발점. 생명 정의는 정치적 자유와 양심의 회복 없이는 성립할 수 없음을 보여줌.
2	옥중서한 ³⁵ , 국제사회와 교황청에 대한 호소 ³⁶	한국의 인권 억압이 국내 문제로 고립됨	유대감, 자기 환경에 대한 통제(정치적)	민주화 정의가 국제적 연대와 지구적 정의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줌.
3	남한강 유역 대홍수 이후 수재민 지원 사업 ³⁷ , 농민에게 한우를 분양하는 사업	재난으로 인한 생존 기반 붕괴, 주거·식량·건강의 위기, 생계 수단 상실	생명, 신체 건강, 자기 환경에 대한 통제(물질적)	생명 정의의 핵심 사례. 정의가 억압의 제거를 넘어 생존 조건의 회복과 자립 역량의 재건을 포함함을 보여줌.
4	재해대책위원회 및 재해대책사업 사무실 운영 ³⁸	재난 대응의 일회성, 제도적 지원의 부재	자기 환경에 대한 통제(물질적), 유대감, 실천이성	생명 정의는 개인적 선행이 아니라 제도적·공동체적 구조를 필요로 함.

34 〈비상군법회의 제3심판부, 지학순 주교에 징역 15년 선고〉, 《가톨릭신문》, 1974년 8월 18일; 〈지 주교, ‘조국과 교회 위해 몸 바칠 각오’〉, 《가톨릭신문》, 1974년 10월 13일.

35 〈서울 기도회, 지 주교 옥중 메시지 공표〉, 《가톨릭신문》, 1974년 9월 22일.

36 〈교황청 방송, 한국 가톨릭에 우려 표명〉, 《가톨릭신문》, 1974년 8월 18일.

37 〈지학순 주교, 수해아동에 급식비 지원〉, 《가톨릭신문》, 1973년 8월 19일.

38 〈인성회, 원주 재해 대책위원회 통해 활동 전개〉, 《가톨릭신문》, 1979년 8월 12일.

구분	사목적 응답 (주요 실천 사례)	박탈 구조	회복된 핵심 역량 (누스바움)	생명 정의와의 관련성
5	농민·노동자·어민 교육과 협동사업 ³⁹ , 협동교육연구소·신 협 세미나·조합원 교육 ⁴⁰	사회적 약자의 정 보·교육·조직 화 역량 박탈, 협 동의 원리와 경제 주체성에 대한 교 육 기회 부족	실천이성, 유대 감, 감각·상상· 사고, 자기 환경 에 대한 통제(정 치적·물질적)	민주화 정의의 총위가 정치제도의 문제에 그치 지 않고 생활세계의 주 체 형성과 겹쳐 나타남 을 보여줌. 생명 정의는 먹고사는 문제를 교육과 공동체 윤리의 차원에서 함께 다룸.
6	신용협동조합 운동 과 원주신협 조직 ⁴¹ , 가톨릭농민회와 농 민 공동체 활동 ⁴²	금융 배제와 빈곤 층의 경제적 종 속, 농민의 사회 적 주변화와 생산 자 존엄의 훼손	자기 환경에 대 한 통제(물질적), 유대감, 실천이성	생명 정의는 시혜적 복 지가 아니라 공동체적 자립 구조의 형성을 포 함하며, 생존만이 아니라 생산자의 존엄과 관계의 회복을 함께 요구함.
7	무점포소비자협동 조합, 원주한살림소 비자생활협동조합 ⁴³	생산과 소비의 단절, 먹거리 안 전과 생활세계의 위기	신체 건강, 유대 감, 다른 중, 자기 환경에 대한 통 제(물질적)	생명 정의가 밥상·소 비·생태·공동체의 차원 으로 확장됨을 보여줌.
8	국제 가리타스, 독 일·오스트리아·미 국 단체와의 연대 ⁴⁴	지역 재난과 빈 곤 문제의 고립	유대감, 실천이성, 자기 환경에 대한 통제(물질적)	지역의 재난과 빈곤이 국제적 연대의 회로 속 에서 다루어진 사례. 생 명 조건의 회복이 지역 에 고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줌.

39 <[본보 창간 50돐 기념 특별기획 전국 교구탐방기] 43. 복음화의 산실 — 원주교구편 3. 농·광·어촌의 사목>, 《가톨릭신문》, 1978년 8월 27일.

40 진광학원 부설 협동교육연구소 설립과 협동조합 세미나 자원에 대해서는 방성찬·이승일, 「1960-70년 대 원주지역의 신탁운동: 진광 협동교육연구소와 진광신탁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제65집, 호남사학회, 2017, 38~45쪽 참조.

41 <[본보 창간 50돐 기념 특별기획 전국 교구탐방기] 42. 복음화의 산실 — 원주교구편 2. 지역사회개발의 선봉>, 《가톨릭신문》, 1978년 8월 20일.

42 <원주농민회, 대의원총회 가져 농촌선교에 앞장 다짐>, 《가톨릭신문》, 1984년 1월 29일.

43 <원주교구 무점포 소비자협동조합, 사무실 개설>, 《가톨릭신문》, 1986년 3월 16일.

44 <독일 「니드라인」 교회, 원주교구에 성금>, 《가톨릭신문》, 1979년 2월 11일.

구분	사목적 응답 (주요 실천 사례)	박탈 구조	회복된 핵심 역량 (누스바움)	생명 정의와의 관련성
9	에티오피아 난민 돕기 등 인성회 차원의 국제 구호 ⁴⁵	타국의 빈곤·재난·난민 문제에 대한 무관심	유대감, 감정	생명 조건의 보장을 국적과 무관한 요청으로 대하는 태도가 나타난 지점. 규범적 지구적 정의론으로 체계화되지는 않았으나 그와 접속할 수 있는 윤리적 지향에 해당함.

※ 표의 '회복된 핵심 역량' 열에는 누스바움이 제시한 열 가지 핵심 역량 목록의 항목만을 사용하였다. '자기 환경에 대한 통제(정치적)'와 '자기 환경에 대한 통제(물질적)'는 원목록의 열 번째 항목이 A. 정치적(political)과 B. 물질적(material)의 두 하위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따른 표기이며, 별개의 역량을 뜻하지 않는다. 한편 '생명 정의와의 관련성' 열은 사례에 근거한 서술이 아니라 연구자의 해석에 해당하므로 앞의 세 열과 성격을 달리한다.⁴⁶

〈표 1〉은 네 가지 구조를 보여준다. 첫째, 양심선언과 범정 진술은 국가폭력과 정치적 발언권의 박탈에 대한 응답으로서, 실천이성과 정치적 환경 통제 역량의 회복이라는 민주화 정의의 출발점을 이룬다. 둘째, 재난 복구·한우 분양·급식 지원은 정의가 억압의 제거에 머물지 않고 생명·건강·물질적 환경 통제라는 생존 조건의 회복으로 확장됨을 보여준다. 셋째, 신용협동조합과 교육·협동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수동적 수혜 대상이 아니라 자기 삶의 조건을 공동으로 통제하는 주체로 세우는 제도화 과정이었으며, 이는 역량의 실질적 보장이 개인의 내적 능력만이 아니라 그것을 떠받치는 제도적·사회적 조건에 달려 있다는 누스바움의 논점과 정확히 상응한다.⁴⁷ 넷째, 국제 가톨릭 네트워크와 해외 구호는 이러한 응답이 지역에 고립되

45 〈주교단 비롯 각계각층서 이디오피아 난민돕기 동참, 인성회에 성금담지〉, 《가톨릭신문》, 1985년 1월 27일; 〈인성회, 아주 구호성금 담지〉, 《가톨릭신문》, 1985년 3월 31일 참조.

46 Nussbaum, *Creating Capabilities*, pp.33~34; 누스바움, 『역량의 창조』, 48~50쪽 참조.

47 Martha C. Nussbaum, *Creating Capabilities: The Human Development Approach*,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pp.21~22.

지 않고 국경을 넘는 연대의 회로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2. ‘생명 정의’의 정식화: 민주화 정의와 지구적 정의의 매개 개념

앞서 밝힌 대로 생명 정의는 지학순 주교가 직접 사용한 개념이 아니라, 그의 실천에 내재한 논리를 역량 접근법의 언어로 재구성한 분석적 개념이다. 여기서 생명은 생물학적 생존이 아니라 먹거리와 주거, 건강, 노동, 유대(감), 공동체 속에서 유지되는 복합적 조건을 뜻하며, 따라서 생명 정의는 죽음을 막는 소극적 생명권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생명, 신체 건강, 실천이성, 유대감, 자기 환경에 대한 통제라는 다섯 핵심 역량이 실제 사회적 조건 속에서 결합 역량의 형태로 문턱 수준 이상 보장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 개념은 지학순 주교의 실천을 민주화 정의에서 지구적 정의로 연결하는 매개로 기능한다. 민주화 정의가 ‘말할 수 있음’과 ‘저항할 수 있음’의 조건을 문제 삼는다면, 생명 정의는 ‘살 수 있음’, ‘먹을 수 있음’, ‘함께할 수 있음’,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의 생존 조건을 문제 삼는다. 이 관점에서 수재민 지원과 한우 분양은 물질적 구호가 아니라 생명 역량의 회복이며, 급식 지원은 건강 역량의 보장이고, 교육은 실천이성과 유대감의 회복이며, 협동조합은 자기 환경에 대한 통제 역량의 제도화이다.

생명 정의는 가톨릭 사회교리나 해방신학의 개념과 관련되지만 그것들과 동일하지는 않다. 가톨릭 사회교리의 인간 존엄·공동선·연대·보조성 원리는 생명 정의의 신학적 토대를 제공하고,⁴⁸ 해방신

48 가톨릭 사회교리의 인간 존엄·공동선·연대·보조성 원리에 관해서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편, 『사목 현장』; 박정우, 『가톨릭 사회교리에 비추어 본 생명과 건강: 인간의 존엄성, 공동선, 연대성과 보조성을 중심으로』, 『인격주의 생명윤리』 제6권 제2호,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6, 51~85쪽 참조.

학의 ‘구조적 죄’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은 억압과 빈곤의 사회구조를 비판하는 자원을 제공한다.⁴⁹ 그러나 본 논문이 제안하는 생명 정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신학적 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역량을 회복시키는가를 묻는다. 곧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택이 실제로 생명, 건강, 교육, 관계, 경제적 자립, 공동체 회복의 역량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개념이다.

나아가 생명 정의는 지구적 정의와 연결된다. 지구적 정의는 국제적 부의 재분배 문제만이 아니라, 국경과 지역을 넘어 모든 인간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최소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보편적 요청이다.⁵⁰

다만 이 접속의 성격을 규정하려면 서로 다른 세 층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 지역의 문제가 국제적 연대의 회로 속에서 다루어지는 층위가 있다. 여기에는 국외로 향한 호소와 국외로부터의 지원이라는 두 방향이 모두 포함된다. 지학순 주교가 옥중서한을 통해 한국의 인권 상황을 교황청과 국제 교회에 알린 일이 전자에 해당하고, 독일 니드라인 교회의 성금과 국제 카리타스의 원주교구 지원이 후자에 해당한다.⁵¹ ㉡ 타국의 재난과 빈곤에 응답하는 층위가 있다. 인성회를 통한 과테말라 구호금 지원(1976), 에티오피아 난민 돕기 성금(1985), 아시아 지역 구호 성금(1985)이 여기에 속한다.⁵² ㉢ 국가, 시장, 국제제도가 인간다운 삶의 최소 조건에 대해 지는 구조적 책임을

49 최정훈, 「가난한 이를 위한 우선적 선택」에 관한 연구: 『복음의 기쁨』을 중심으로, 『신학전망』 제217호,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22, 66~109쪽 참조.

50 Nussbaum, *Frontiers of Justice*, p.281.

51 〈서울 기도회, 지 주교 옥중 메시지 공표〉, 《가톨릭신문》, 1974년 9월 22일; 〈교황청 방송, 한국 가톨릭에 우려 표명〉, 《가톨릭신문》, 1974년 8월 18일; 〈독일 「니드라인」 교회, 원주교구에 성금〉, 《가톨릭신문》, 1979년 2월 11일.

52 〈인성회, 과테말라에 구호금〉, 《가톨릭신문》, 1976년 2월 22일; 〈주교단 비롯 각계각층서 이디오피아 난민돕기 동참〉, 《가톨릭신문》, 1985년 1월 27일; 〈인성회, 아주 구호성금 답지〉, 《가톨릭신문》, 1985년 3월 31일.

규범적으로 논증하는 층위가 있다. 누스바움이 *Frontiers of Justice*에 서 전개한 지구적 정의론이 이 층위에 놓인다.

지학순 주교의 실천이 놓인 자리는 ㉠과 ㉡이다. 그의 국제적 연대와 해외 구호는 지역의 사목 현장에서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였고, 그 자체로 지구적 정의론의 정식화를 뜻하지 않는다. 그가 국제 원조의 구조나 국가 간 불평등의 제도적 원인을 이론적 대상으로 삼은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에서 곧바로 ㉢을 도출하는 것은 논증의 비약이다.

그럼에도 ㉠·㉡과 ㉢ 사이에는 하나의 연결 고리가 있다. 두 층위 모두 도움을 시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로 대한다는 점이다. 인성회의 해외 구호가 국적과 무관하게 재난 피해자의 생존 조건에 응답한 실천이었다면, 그 태도에는 누스바움이 ‘모든 인간에게 핵심 역량의 문턱 수준을 보장할 책임’이라 부른 요청과 상응하는 지향이 담겨 있다. 본 논문이 말하는 지구적 정의는 지학순 주교가 정식화한 이론이 아니라, 이 지향을 역량 접근법의 언어로 읽을 때 열리는 해석적 지평이다.

이 지평에서 볼 때, 생명 정의는 정치적 자유의 회복을 삶의 조건 회복이라는 물음으로 잇고, 그 물음이 지역에 갇히지 않을 근거를 제공한다. 생존의 최소 조건이 국적이나 출생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요청은 그 자체로 국경을 넘기 때문이다.

앞서 서론에서 밝힌 대로 세 층위는 시간적 발전 단계가 아니라 박탈의 층위에 따른 분석적 차원이다. 그렇다면 남은 물음은 이 가운데 왜 생명 정의가 매개의 자리에 놓이는가이다.

그 까닭은 생명 정의가 나머지 두 층위와 각각 하나의 역량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민주화 정의와는 실천이성과 정치적 환경에 대한 통제를 공유한다. 사람이 부당함을 판단하고 공적으로 발언하려

면 먼저 살아 있어야 하고, 병들지 않을 조건과 생계를 가져야 한다. 지구적 정의와는 유대감과 인간 존엄의 보편성을 공유한다. 곧 생명 정의는 두 층위 사이에 놓인 중간 단계가 아니라, 양쪽과 각각 겹치는 부분을 가짐으로써 둘을 하나의 척도 위에서 논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이는 지학순 주교의 실천에서도 확인된다. 양심선언에서 협동 조합에 이르는 그의 실천은 동일한 사목적 동기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안에서 정치적 억압에 대한 응답과 생존 조건의 회복, 보편적 인간 존엄에 대한 응답이 중첩적으로 작동한다. 이 점에서 생명 정의는 ‘말할 수 있음’의 정치적 차원과 ‘살 수 있음’의 물질적 차원,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함’의 보편적 차원을 하나의 정의 개념 안에서 결합한다.

3. 누스바움과 지학순의 상호보완성과 긴장

지학순 주교의 실천을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으로 해석하는 작업은 두 사상가의 직접적 영향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다. 두 사람의 관계는 영향사적 관계가 아니라 인간 존엄과 취약한 이들의 삶의 조건 회복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드러나는 개념적 공명의 관계이다.

두 사유는 네 가지 점에서 만난다. 인간 존엄을 정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점, 정의를 추상적 권리의 선언이 아니라 삶의 조건의 보장으로 이해한다는 점, 취약한 이들의 삶을 정의론의 중심에 놓는다는 점, 그리고 정의를 관계적 차원에서 파악한다는 점이다. 누스바움의 유대감(affiliation)과 지학순의 협동조합 실천은 모두 상호 인정

과 연대의 관계망을 회복하려는 시도였다.⁵³

그러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긴장도 존재한다. 첫 번째 긴장은 세속적 정치철학과 신학적 사목 언어 사이의 차이이다.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특정 종교나 ‘무엇이 좋은 삶인가’에 대한 포괄적 견해를 강요하지 않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틀에서 정식화되는 반면, 지학순 주교의 실천은 가톨릭 신앙, 교회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회적 교회 이해 안에서 형성되었다. 두 번째 긴장은 보편적 기준과 지역적 실천 사이의 차이이다. 누스바움은 보편적 핵심 역량 목록을 제시하지만, 지학순 주교의 실천은 원주교구와 남한강 유역, 유신체제라는 구체적 맥락 속에서 전개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의 실천을 누스바움 이론의 예시로 환원하지 않고, 역량 접근법이 한국 가톨릭 사회사상의 현장에서 어떻게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다룬다. 세 번째 긴장은 지구적 정의의 범위와 관련된다. 누스바움의 지구적 정의론은 국가 경계를 넘는 규범적 요청을 제기하지만, 지학순 주교가 체계적 지구적 정의론을 전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지구적 정의란 그가 정식화한 이론이 아니라, 그의 지역적 생명 실천이 누스바움의 지구적 정의 문제의식과 만나는 해석적 지평을 가리킨다. 그의 실천은 국제적 연대와 해외 구호의 층위에 놓이며, 국가·시장·국제제도의 구조적 책임을 묻는 층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이 점에서 두 사유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으며, 본 논문은 그 거리를 해석으로 메우지 않는다. 네 번째 긴장은 역량 접근법의 개인 중심성과 지학순 실천의 공동체성 사이에서 발생한다. 누스바움은 각 개인의 역량 보장을 정의의 핵심으로 삼지만, 지학순 주교의 실천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역량 회복만

53 Nussbaum, *Creating Capabilities*, pp.39~40.

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재구성이었다. 이 점에서 그의 사목은 역량 접근법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다루는 공동체적·제도적 차원을 보완한다.

반대로 지학순 주교의 신학적·사목적 언어는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을 통해 보완될 수 있다. 그의 실천은 강한 윤리적 힘을 지니지만, 현대 정치철학의 보편적 언어로 번역되지 않으면 한국 가톨릭 내부의 사건으로만 이해될 위험이 있다.⁵⁴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그의 실천이 자선이나 사목 활동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회복하는 정의의 실천이었음을 설명하는 분석 언어를 제공한다.⁵⁵ 따라서 두 사유의 관계는 일방적 적용이 아니라 상호보완의 관계이다. 생명 정의는 이 긴장을 은폐하는 개념이 아니라 생산적으로 매개하는 개념이며, 그런 의미에서 세속 정치철학과 가톨릭 사회사상 사이의 쌍방향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V. 결론

■ 본 논문은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을 개념 틀로 삼아 지학순 주교의 민주화·사회개발 실천을 재해석하였다. 양심선언과 법정 진술은 실천이성과 자기 환경에 대한 통제 역량의 회복에, 남한강 재난

54 실제로 기존 연구는 대체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수목 현장의 실천, 통합적 인간 발전 등 교회 내부의 신학적 맥락에서 그의 실천을 다루어 왔다. 신정훈, 앞의 글; 이동화, 앞의 글; 장동훈, 앞의 글 참조. 이러한 연구들은 그의 사목이 지닌 신학적 의미를 밝히는 데 기여하였으나, 그 실천을 교회 밖의 규범적 언어로 옮기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시도되지 않았다.

55 역량 접근법이 자원의 제공량이 아니라 각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평가 척도로 삼는다는 점에 관해서는 Nussbaum, *Creating Capabilities*, pp.17~20, 25(누스바움, 앞의 책, 32~35, 40쪽) 참조. 이 척도가 권리 담론을 폐기하지 않고 실질화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논의로는 송윤진, 앞의 글; 김연미, 앞의 글 참조.

복구와 급식 지원, 한우 분양은 생명과 신체 건강, 물질적 조건에 대한 통제 역량의 회복에, 신용협동조합과 교육·사회개발 활동은 유대감과 경제적 자립 역량의 제도화에 각각 대응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생명 정의를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넘어, 인간이 먹고, 살고, 일하고, 배우고, 관계 맺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정의’로 정식화하고, 민주화 정의와 지구적 정의를 매개하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이 분석은 두 가지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이론을 사례에 일방적으로 적용한 작업이 아니다. 원주교구의 협동조합 실천에서 회복된 것은 개인의 역량인 동시에 그 역량이 행사될 관계망과 조직 자체였다. 조합원 한 사람의 자립은 조합이라는 형식이 유지될 때에만 성립하며, 그 형식은 개인 역량의 총합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그의 실천은 결합 역량의 사회적 조건을 누가 어떻게 만들어 내는가라는, 역량 접근법이 상대적으로 적게 다룬 물음에 응답한다. 둘째, 사목적 언어의 번역에는 잔여가 남는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은 역량의 언어를 거쳐 검증 가능한 규범적 요구로 옮겨지지만, 그 실천을 추동한 신앙적 동기는 온전히 번역되지 않는다. 본 논문이 두 사유의 관계를 적용이 아니라 공명으로 규정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생명 정의는 과거의 인물을 해석하기 위한 개념에 머물지 않는다. 기후위기와 반복되는 재난, 돌봄의 위기, 지역 공동체의 소멸이라는 조건에서 재난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울 조건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이 영역은 정의의 물음이라기보다 복지나 시혜의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생명 정의는 그것을 정의의 언어로 되돌리려는 시도이며, 1972년의 수해 현장과 1974년의 법정에서 그가 한 일이 서로 다른 종류

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본 논문의 분석이 그 역사적 근거를 이룬다.

본 논문은 개념적·문헌적 해석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협동조합 운동이 주민의 삶에 미친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원주 지역 생명 운동과의 사상적 관계 규명은 미간행 1차 사료의 검토와 함께 후속 과제로 남는다. 아울러 그의 국제적 연대는 지구적 정의와 접속할 윤리적 지향을 보여줄 뿐, 국가와 시장, 국제제도의 구조적 책임을 논증하는 층위로 나아간 것은 아니다.

- 강경희, 「마사 누스바움 잠재역량 접근법의 윤리적 함의」, 『철학연구』, 제67집,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23.
- 강준호, 「보편윤리에 대한 보편주의적 접근방식의 비판적 고찰」, 『인문학연구』, 제29호,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 김소남, 「1970년대 원주지역 재해대책사업위원회의 광산지역 장기구호사업과 신용협동조합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2.
- _____, 「1960~1980년대 원주지역의 협동조합운동과 생명운동」, 『신헌연구』, 제75호, 2020.
- 김연미, 「누스바움의 역량접근과 정의」, 『법학연구』, 통권 제61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 김재익, 「지하순 주교의 생명평화운동과 가톨릭의 사회참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평신도 및 비가톨릭 인식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한국그리스도사상』, 제32집,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2025.
- 목광수, 「역량 중심 접근법의 윤리적 함의: 아마티아 센의 논의를 중심으로」, 『윤리학』, 제1권 제1호, 한국윤리학회, 2012.
- 박정우, 「가톨릭 사회교리에 비추어 본 생명과 건강: 인간의 존엄성, 공동선, 연대성과 보조성을 중심으로」, 『인격주의 생명윤리』, 제6권 제2호,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6.
- 방성찬·이승일, 「1960-70년대 원주지역의 신헌운동: 진광 협동교육연구소와 진광 신헌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제65집, 호남사학회, 2017.
- 송윤진, 「인권의 철학적 기초: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에서 인간존엄」, 『법철학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법철학회, 2019.

- 신정훈,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한 사목 방향과 지학순 주교의 사목: 사목 헌장을 중심으로」, 『신학전망』, 제204호,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19.
- 염찬희, 「생협운동의 또 하나의 씨앗: 천주교 원주교구와 강원도 생협운동」, 『한국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푸른나무, 2012.
- 이동화, 「지학순 주교의 ‘통합적 인간 발전’의 실천」, 『신학전망』, 제204호,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19.
- 장동훈, 「지학순의 공의회, ‘지학순’이라는 공의회: 한국 천주교회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수용 과정 안에서의 지학순 주교」, 『신학전망』, 제206호,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19.
- 장영민, 「한·미 외교문서로 본 지학순 주교의 민주화운동: 관련 행위자들의 인식과 대응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통권 제31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4.
- 지학순, 『정의가 강물처럼: 지학순 주교 강론집』, 형성사, 1983.
- 최정훈, 「‘가난한 이를 위한 우선적 선택’에 관한 연구: 『복음의 기쁨』을 중심으로」, 『신학전망』, 제217호,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22.
- Nussbaum, Martha C., *Creating Capabilities: The Human Development Approach*,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역량의 창조: 인간다운 삶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한상연 옮김, 돌베개, 2023[2015].)
- _____, *Frontiers of Justice: Disability, Nationality, Species Membership*,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 《가톨릭신문》, 1973년 8월 19일; 1973년 9월 2일; 1974년 8월 18일; 1974년 9월 22일; 1974년 10월 13일; 1976년 2월 22일; 1978년 8월 20일; 1978년 8월 27일; 1979년 2월 11일; 1979년 8월 12일; 1983년 3월 27일; 1984년 1월 29일; 1985년 1월 27일; 1985년 3월 31일; 1985년 7월 7일; 1986년 3월 16일; 1986년 12월 14일; 2007년 2월 25일; 2020년 6월 21일; 1993년 3월 21일.
(개별 기사명은 각주에 명시)
- 최규창 구술, 「평신도와 소통하는 주교님」, (사)강원시민사회연구원, 『2014 지학순 주교와 민주화운동 그리고 원주 1(구술자료집)』, 2014.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편, 「사목헌장」,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본 논문은 마사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의 역량 접근법(capabilities approach)을 개념 틀로 삼아 지학순 주교의 민주화·사회개발 실천을 ‘생명 정의’를 매개 개념으로 하여 재해석하고, 그의 지역적 실천이 지구적 정의와 접속하는 해석적 지평을 밝힌다. 기존 연구는 누스바움을 정치철학·인권론·개발윤리의 차원에서, 지학순을 한국 천주교회의 민주화 운동과 사회사목의 맥락에서 다루어 왔으나, 두 흐름을 접속한 시도는 충분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직접적 영향관계가 아니라 개념적 공명(conceptual resonance)의 방법으로, 양심선언·옥중서한·법정 진술과 남한강 재난 복구, 한우 분양, 신용협동조합, 농민 교육을 ‘박탈 구조-사목적 응답-역량 회복’의 틀에서 분석한다. 그 결과 지학순의 실천은 생명·건강·실천이성·유대감·자기 환경에 대한 통제 역량을 회복시키는 사목적 실천으로 해석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생명 정의’를 민주화 정의와 지구적 정의를 매개하는 개념으로 정식화한다. 생명 정의란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넘어, 인간이 먹고, 살고, 일하고, 배우고, 관계 맺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정의이다. 이 개념을 통해 지학순의 지역적 생명 실천은 누스바움이 요청하는 보편적 인간 존엄의 조건과 만나며, 한국 가톨릭 사회사상 안에서 지구적 정의를 사유하기 위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 다만 그의 실천은 국제적 연대와 해외 구호의 층위에 놓이며, 지구적 정의론의 체계화로 나아

간 것은 아니다.

주제어: 마사 누스바움, 지학순, 역량 접근법, 생명 정의, 지구적 정의



Reinterpreting Bishop Ji Hak-soon's Practice of Justice According to Martha Nussbaum's Capabilities Approach: Focusing on Life Justice and Global Justice⁵⁶

KIM, Jae-ik

(Sogang University · Department of Philosophy · Ph.D. Candidate)

■ This study employs Martha Nussbaum's capabilities approach to reinterpret Bishop Ji Hak-soon's practices of democratization and social development in the Korean context. Rather than positing a direct line of influence, this study applies the conceptual resonance approach, analyzing Bishop Ji Hak-soon's *Declaration of Conscience* and his courtroom statements, as well as his work concerning flood relief, cattle loan programs, credit unions, and farmers' education, according to the framework of "deprivation – pastoral response – restoration of capabilities." Bishop Ji Hak-soon's practices are shown to have restored the capabilities of life, bodily health, practical reason, affiliation, and control over one's

56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4S1A5B5A17034852)

environment. On that basis, this study formulates “life justice” as a concept that mediates between democratic and global justice — that is, a conception of justice that extends beyond liberation from oppression to the conditions under which human beings can eat, work, learn, and restore their community.

Keywords: Martha Nussbaum, Ji Hak-soon, Capabilities Approach, Life Justice, Global Justice

- ◎ 투고 접수 2026. 07. 07.
- ◎ 심사 완료 2026. 08. 04.
- ◎ 게재 결정 2026. 08. 07.